

## 기독교회의 이단종파(異端宗派)에 대한 정의



박영관 목사

기독교회(基督敎會)의 이단종파(異端宗派)에 대하여 성경적(聖經的), 신학적(神學的), 그리고 목회적(牧會的)으로 정의(定義)하려고 한다.

### I. 기독교회의 이단에 대한 성경적(聖經的) 정의

현재 우리나라에는 기독교회의 이단종파들이 약 120종류가 있으며, 그 추종자는 약 2백만 명이 된다. 그리고 이교(異

- 약력 : • 미국 풀러신학대학원 졸업(Ph. D.)  
• 중국중앙교회 담임목사  
• 한국기독교이단종파연구소장

敎) 신앙 집단은 약 450종류가 있다. 지금까지 일부 기독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이단(異端)이란 용어를 자기 입장에 편리한 대로 사용하였던 것이다. 가령 지교회, 노회, 총회를 보면, 자기 뜻과 맞지 않거나 노회(老會)와 총회(總會)의 노선(路線)이 다르면, 상대(相對)쪽을 향해서 우리는 정통(正統)이고, 너희는 이단(異端)이라고 주장해 왔던 것이다. 그렇기에 기독교회의 이단들까지도 말하기를 “지금是我们이 이단일지는 모르지만 훗날에는 우리가 정통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필자의 「이단종파 비판」 제1권, 제2권, 제3권에서 밝혔다. 참고하면 유익할 줄 믿는다. 기독교회의 이단에 대한 성경적 정의를 다음의 성경 구절을 중심으로 밝히려고 한다.

#### A. 성경을 가감(加減)하면 기독교회의 이단이다(계 22:18-19)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66권으로 이뤄진 하나님의 책이며, 완전 영감(靈感)으로 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신앙과 생활의 규범(規範)인 것이다.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성경 자체가 자증(自證)하고 성경의 내적인 역사로 입증되는 것이다.

역사적 기독교회는 초대교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성경을 가감하면 기독교회의 이단으로 엄단하여 왔다. 왜냐하면 성경 외에는 하나님의 특별계시와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2장 18-19절에서 기록하기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했다.

예를 들면, 문선명 집단의 「원리강론」, 박태선 집단의 「오묘」, 김백문의 「근본원리」, 이유성의 「말세비밀」, 양도천의 「영약」, 물론교의 「물론경」, 토요일교의 「교리문답집」, 크리스천 사이언스의 「과학과 건강」, 여호와의 증인의 「새세계 번역 성경」, 로마 카톨릭의 「성경」 등등이다.

#### B.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救贖事役)을 제한하거나 부인하면 기독교회의 이단이다(행 4:12)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기의 백성을 택하셨고 그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救世主)로 믿으면 인격적 구원을 받는 것이다.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행 4:12)고 했다.

이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요, 구원의 방편이며, 구속의 사역을 하신 하나님 이시다는 것이다. 기독교회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증거한 유일한 유형교회(有形教會)이며 백성들인 것이다. 그렇기에 이에

서 벗어나면 기독교회는 그들을 이단으로 정죄하였다.

예를 들면, 문선명은 ‘제림주’, 박태선은 ‘천부’, 김백문은 ‘대제사장’, 양도천은 ‘하나님’, 정명석은 ‘엠 에스’, 조희성은 ‘정 도령’, 요셉 스미스 2세는 ‘예언자’, 엘렌지 화이트는 ‘말세여중’, 에디 부인은 ‘어머니’, 찰스 타제 러셀은 ‘여호와와의 종’ 등등이다.

#### C. 지금도 계속적 계시(Revelation)와 영감(Inspiration)을 주장하면 기독교회의 이단이다(딤후 3:16-17)

우리는 이미 계시와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으며 그것으로 인해 신앙생활에 충족(充足)함을 갖는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더 이상의 계시(啓示)와 영감(靈感)을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으며, 이제는 주어진 계시를 성령의 조명(Illumination)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자기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이다.

지금도 하나님으로부터 계속적(繼續的)으로 계시와 영감을 직접 받는다고 하면, 기독교회는 그들을 이단으로 정죄할 것이다.

예를 들면, 삼각산, 청계산, 한열산, 보현산, 용문산, 무등산, 팔영산 등에서 계시를 받았다는지, 또 제주도, 울릉도, 그 외에 외딴 섬에서 영감을 받아 사도행전 후편이나, 요한계시록 속편을 썼다는 것 등이다.

#### D. 비윤리적(非倫理的)이요, 반사회적(反社會的)이며, 반국가적인 집단은 기독교회의 이단이다(마 24:12-13)

역사적 기독교회는 이 땅 위에서 성경적인 윤리(倫理)와 도덕(道德)을 가지며, 더 나아가서 일반 은총에 의한 사회와 국가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가져 그들에 대한 철저한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앙적 원리를 주장하면서 퇴폐적이고 세속적이며 부도덕한 윤리를 조장하거나, 사회의 혼란을 초래하고 국가에 대한 정당한 의무와 책임을 지지 않은 신앙집단은 이단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문선명 집단의 합동결혼식, 박태선의 신앙촌, 양도천과 이유성의 계룡산 도피성, 물몬교의 유타주 쏘트레이크 성전, 여호와의 증인의 피 수혈과 집총(執銃) 거부 등등이다.

#### E. 흑세무민(惑世誣民)을 주장하면 기독교회의 이단이다(살전 4:16-17)

역사적 기독교회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성경적인 올바른 종말론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백성들을 미혹하여 천재지변과 말세적 징조를 강조하여 성도들과 백성들을 유혹하는 흑세무민의 원리를 부르짖는 집단을 기독교회는 이단으로 정죄한다.

대부분의 이단종파들은 잘못된 종말론(終末論)에서 출발하여, 비성경적 종말론에서 꽃을 피우고 끝내는 흑세무민의 종말론에서 말썽을 빚어 스스로 자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집단들은 추종자들의 가정을 파괴하고, 인권을 착취하고, 물질적 피해를 주며, 심지어는 집단자살,

암매장을 당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계룡산과 지리산, 삼각산과 용문산 등이 말세의 도피성(逃避城)이라든가, 아니면 박명호와 안상홍, 이장림과 박옥수, 박무수와 류광수 등등 같이 자기 집단화(集團化)의 율타리를 쌓고 추종자(追從者)들을 모으는 것 등이다.

지금까지 기독교회의 이단에 대한 성경적 정의를 내렸다. 여기서 다시 요약하면 성경을 가감(加減)한다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제한 혹은 부인(否認)한다든지, 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와 영감을 받는다고 하면 기독교회의 이단인 것이다.

그리고 비윤리적(非倫理的)이요, 반사회적(反社會的)이요, 반국가적(反國家的)인 집단과 흑세무민(惑世誣民)을 주장하면 기독교회의 이단이다.

## II. 기독교회의 이단에 대한 신학적(神學的) 정의

기독교회의 이단(異端)에 대한 개혁주의 신앙과 신학적인 입장에서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 그것은 기독교회의 복음은 언제 어느 곳에서나 불변성(不變性)을 가지지만, 그 현실성(現實性)은 역사와 시대환경과 문화의 영역에서 그 가치관의 변화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기독교회의 이단종파들도 20세기와는 달리 21세기에 그들 자신들도 색다르게 변화와 변모(變貌)를 가져올 것이다.

지금까지는 역사적 기독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적인 입장(敎會論)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적 견지(基督論)에서 기독교회

의 이단들을 정죄하였으나, 앞으로는 기독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의 신학적(神學)으로 정의해야 한다.

#### A. 무신론(無神論)은 기독교회의 이단이다(시 10:4)

기독교회의 이단은 유일신(唯一神) 하나님을 부인하는 무신론의 신앙과 집단들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죽었다고 무신론(無神論) 철학을 제창한 니체(Friedrich Wilhelm Nietzsche), 무신론 복음을 말한 알티저(Thomas J. J. Altizer)와 하밀턴(William Hamilton) 등이다.

그리고 공산주의(共產主義)를 부르짖은 칼 마르크스(Karl Marx)와 진화론(進化論)을 내세운 찰스 다윈(Charles Robert Darwin) 등등이다. 그들은 모든 사상에서 하나님이 없다고(시 10:4) 하는 사람들이며, 주의(Ism)이며, 집단들이다.

#### B. 악령적(惡靈的) 신앙과 생활은 기독교회의 이단이다(살후 2:9-10)

기독교회의 이단은 악령적 신앙과 생활의 무리들과 집단이다.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보면, 엔들의 겹신녀(삼상 28:7), 아나니아의 행위(행 5:3), 광명한 천사(天使)로 가장하는 것 등이다(고후 11:14).

우리나라에서는 신내림의 무당과 무속신앙(巫俗信仰)이며, 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사단적 교회 등이다.

#### C. 광적 신비주의(狂的神秘主義)는 기독교회의 이단이다(왕

#### 상 18:28)

기독교회의 이단은 광적 신비주의 신앙과 집단들이다. 구체적으로 바알의 선지자들(왕상 18:28), 스데반을 돌로 쳐죽인 유대인들(행 7:57)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게 한 유대교의 대제사장들(요 19:15)이다. 그들은 단일관념(單一觀念)주의이며, 광적 신비주의 신앙집단들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정제단의 무당적 곳이며, 발광적 신유은사의 집회 등이다.

#### D. mammon(物神)은 기독교회의 이단이다(딤후 6:10)

기독교회의 이단은 mammon주의이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물질과 돈을 목표로 삼고, 오직 황금만능주의를 추구하는 신앙과 집단들이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지 못하는 것이다(마 6:24).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기록하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이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하나님의 교회와 목회자들이 바리새인들 같이 돈을 좋아하며(눅 16:14), 또한 그들은 배로 신(神)을 삼고 있는 것이다(빌 3:19).

#### E. 창조세계의 파괴(破壞)는 기독교회의 이단이다(느 9:6)

기독교회의 이단은 창조세계를 파괴하는 신앙과 집단들이

다. 구체적으로 인공위성으로 우주공간(宇宙空間)을 더럽히고 지구환경(地球環境)을 파괴하고 공기와 물, 땅과 바다를 오염(汚染)시키는 것 등이다.

느헤미야 선지자는 느헤미야서에서 기록하기를,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고 했다.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사역과 목적을 나타내는 말씀이다.

21세기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서로가 자기 신앙과 생활의 범주(範疇)에서 벗어났다고 기독교회의 이단으로 정죄(定罪)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 III. 기독교회의 이단에 대한 목회적(牧會的) 정의

기독교회의 이단에 대한 목회적(牧會的) 정의를 내리려고 한다. 필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목사안수(牧師按手)를 받은 지 35년이요, 한 교회를 개척(開拓)하여 목회를 한 지 25년이 넘었다. 1962년 봄 한강 육교(陸橋) 밑과 남가좌동 빈민촌의 천막교회(天幕教會)로부터 시작하여, 전남 나주의 덕음광산촌 교회, 서울 미아리 고개의 세광교회, 군북으로 26사단 76연대 군인교회, 동해안 군인교회, 광주 전투병과 교육사령부 군인교회, 1207 야공단 군인교회 등등에서 사역을 하였다.

그리고 1972년 미국에 유학가서 미국의 애틀랜타 한인 교회에서 동사 목회를 하였고, 지금은 서울의 동쪽 아차산 기슭의 중국중앙교회를 1978년 5월에 개척(開拓)하여 오늘에 이

르고 있다.

처음에 개척교회의 뜻을 가진 목회자들은 일반적으로 자기 집의 안방에서 시작한다. 그 다음은 2층을 전세연고 그 다음은 교회 땅을 산다. 그리고 예배당을 건축하고 교육관을 매입하고, 교회의 동산과 수양관을 구입하는 등의 단계적인 목회를 하는 것이다.

그 다음은 교회의 신앙적 성장을 위해서 국내외의 선교활동적 목회를 하고, 성도의 신앙적 관리와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예배와 심방, 상담 등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목회를 한다. 이와 같이 목회의 현장에서 발견한 기독교회의 이단에 대한 정의를 목회적인 입장에서 하려고 한다.

#### A. 기독교회의 예배(禮拜)를 세속적으로 드리면 기독교회의 이단이다(요 4:24)

기독교회의 예배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산 제사(祭事)이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기록하기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고 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救贖)함을 받고 그 은혜를 깨닫고, 경건하게 거룩하게 드리는 영적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혹은 교제인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사교(社交)와 인위적 친목(親睦) 그리고 세속적인

노래(音樂)와 춤, 운동(運動), 오락(娛樂) 등을 일삼은 교회는  
기독교회의 이단이다.

일부 기독교회는 목요찬양집회라고 하여, 복음송에서부터  
민요와 가곡 심지어 유행가를 부르며, 열린 예배라고 하여 남  
녀가 영적 춤을 추며, 노래를 하고, 명상과 요가를 하는 것 등  
이다.

#### B. 기독교회의 목회자가 자기의 왕국(王國)을 세우면 기독교회의 이단이다(마 6:33)

기독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는 것이  
며,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  
체요 성전을 이룩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기독교회의 목회자들이 자기 왕  
국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보다 더 큰 교회, 더 많은  
성도, 더 좋은 시설의 교육관, 선교관, 수양관, 교회의 학교,  
아파트, 공장, 병원, 묘지 등등을 갖추고, 자기 교회와 교단의  
울타리를 쌓은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복지 시설은 바람직하지  
만, 목회자의 왕국 건설은 성경적이 아니며, 또한 그것이 목  
회의 성공인 것처럼 여기고, 일국의 왕처럼 호의 호식을 하  
고, 군림하는 것은 기독교회의 이단이다.

#### C. 기독교회의 양들을 도둑(盜賊)질하면 기독교회의 이단이다(요 10:12)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자기의 양을

놓고, 성경적으로 양육(養育)하고, 인격적으로 성장(成長)시키  
야 한다.

그렇지 않고 다른 목회자가 애쓰고 땀흘려 전도한 성도들,  
이웃의 교회의 성도들을 지연, 학연, 교파 등을 내세워 성도  
들을 훔쳐가고, 모은 교회는 기독교회의 이단이다.

초대 한국기독교회는 이명증서(移明證書)를 주어서 타(他)  
교회에 등록을 하게 하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하나님  
의 교회들은 새신자, 양육신자보다는 이동신자를 70% 이상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비정상적 성장이며, 이와 같은  
풍조 속에서 양을 훔치고 있는 것이다. 기독교회의 가장 바람  
직한 교회 성장비율은 새신자 30%, 양육신자 30%, 이동신자  
30%이다.

#### D. 기독교회의 교정(敎政)을 인위적으로 하고, 형상적(形相 的)이면 기독교회의 이단이다(딤후 3:1-7)

기독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교정을 행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목회자, 당회원, 권사  
와 안수집사를 세우고, 거룩한 성례전을 목회자의 마음대로  
배풀고, 형상적 장식을 하고, 정부(政府)와 정치(政治)적인 야  
합(野合)을 하는 교회들은 기독교회의 이단이다.

기독교회는 우상숭배가 아니며, 교회와 정부는 공존하며,  
서로가 유대관계를 가질 뿐이다.

#### E. 기독교회의 분열(分裂)과 분파(分派)를 일삼으면 기독교회의 이단이다(고전 3:16-17)

성경(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代贖的) 구원(救援)을 믿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사도신경(使徒信經)과 주기도문(主祈禱文)을 함께 외우고 실천하며, 12 신조(信條)를 믿는 기독교회들은 절대로 분열과 분파를 해서는 아니된다.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전파를 위해서 지교회와 개척교회를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성경적 해석의 차이도 없고, 신앙적 신학적인 견해도 차이 없는데도, 교권(敎權)과 권력다툼 그리고 주도권 행사로 하나님의 교회를 분열과 분파하는 교회들은 기독교회의 이단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을 공부하고, 전도사, 강도사, 목사 안수를 받고, 하나님의 교회를 목회해 온 필자는 기독교회의 이단은 하나님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안에 너무도 많이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성경적 예배가 아니라, 인위적인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건설이 아니라, 목회자의 왕국 건설하는 것 등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의 양들을 도적질, 사적(私的) 교정, 형상적 장식과 우상숭배 등이다.

뿐만 아니라 기복신앙, 종교 다원주의,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의 감정과 의지대로 분열과 분파를 일삼는 것 등이다. 이 모든 행위는 목회적으로 기독교회의 이단으로 규정할 수 있다.

지금까지 기독교회의 이단(異端)을 성경적, 신학적, 그리고 경험적인 목회적 입장에서 정의를 내렸다.